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7

부단한 정진으로 복받기꾸라

[원문] 사향사과조원성(四向四果早圓成) 삼명육통실구족(三明六通悉具足) 밀승아불수교축(密承我佛受教屬) 주세항위진복전(住世恒爲眞福田) -금오산 향천사 나한전

[번역] 사향(四向) 사과(四果)를 속히 잘 이루고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모두 다 갖추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손히 모두 받아 이 세상에 참된 복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고자 하네.

[산해(禪解)] 어느 날인가. 나는 법회 중에 한 불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이 자라는 환경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아니 대답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물음은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물음일 수도 있고 허무맹랑한 물음, 아주 쉬운 물음일 수도 있다.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 들고 바쁜 세상에 이 따위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평범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 솔직히 고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불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우리의 삶은 온 것을 모르고 간 곳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태어났으며 그리고 늙어 병을 얻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출가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원인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이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좁고 어두운 공간. 탄한 물속에 갇혀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비로소 지상 아래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 때 거대한 압착기에 눌리는 나무 조각과 같은 고통, 기름을 짜내는 찰매가 된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 어머니의 땀방울이 나온 후에도 고통은 계속돼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어도 마치 가시구멍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것이 바로 탄생의 고통이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탄생을 적절하게 비유했다. 하지만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성장하면서 더한 고통을 당한다. 마침내 탄생한 아기는 점점 자라서 등은 굽어지고 백발이 되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이 된다. 눈은 시력을 잃어 희미하게 되고 귀는 어두워 잘 들리지 않는다. 입은 이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고 몸은 기력이 없어져 걷기조차 힘들어진다. 고통은 그 뿐만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얻는 병마가 있다. 암이나, 혈우병, 고혈압, 당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病) 속에 인간은 갇혀 산다. 어디 그 뿐인가? 마음이 지어내는 욕망으로 인해 인간은 정신적 충격에 쌓여 온전한 자기 자신을 잃고 해멘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고통 속에서 구제하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인도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서 참으로

재자로 173)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의각이 옥돌로 조성한 높이 15cm 정도의 소불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안치되어 있다.

극락전 앞에는 자연석을 가공해 만든 당간지주가 있고, 그 옆 나한전 앞에 9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 174)이 있다. 천불전 서쪽에 부도 2기(충남문화재자료 179)가 있는데, 의각 대사 부도 1기와, 일진 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대사의 부도 1기로, 의각 부도는 조각이 정교하며 신라나 고려 때 것과는 전혀 다른 작법을 보여준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사과조원성 삼명육통실구족: 사향(四向) 사과(四果)를 속히 잘 이루고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모두 다 갖추었다.’

사향(四向)은 소승불교에서 수도해 깨달음을 얻어 들어가는 4가지 품계이며 수행의 가장 기초 단계인 견도향(見道向), 불교의 근본 진리를 명료하게 보는 눈을 얻는 단계인 정류향(頂流向), 육계의 모든혹을 끊는 단계인 일래향(一來向), 육계 9품의 수혹 가운데 7, 8품은 끊었지만 아직 1품이 남아 있는 단계 불환향(不還向)을 뜻한다.

사과(四果)는 소승불교의 성문들이 탐진치의 삼독을 끊고 위없는 성도에 들어가 부처가 되는 4단계 깨달음의 결과를 말한다.

삼명(三明)은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 곧 과거의 업상(業相)과 인연을 알아 내 세의 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고상(苦相)을 깨달아 번뇌를 끊어 버림을 말하고 육통은 천안통(天眼通), 천이통(天耳通), 타심통(他心通), 숙명통(宿命通), 신족통(神足通), 누진통(漏盡通)이다. 말하자면 사향 사과와 삼명육통을 다 구족하기 위해 정진하라는 경구(警句)이다.

‘밀승아불수교축 주세항위진복전: 부처님 가르침을 공손히 모두 받아 이 세상에 참된 복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고자하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복전(福田)을 구하는 길이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중생들이 이를 따르기란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정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필히 부처님의 시인(施恩)을 받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부대중들이 평생 따라야 할 살임을 명심해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7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

[원문] 若見自心是佛 不在剃除鬚髮 白衣亦是佛. 若不見性 剃除鬚髮亦是外道. 問曰 白衣有妻子 慾不除憑何得成佛. 答曰 只言見性 不言慾.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아는 것은 머리와 수염을 깎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속인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더라도 도에 서는 벗어난 것이니라.”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처자가 있어서 음욕을 없애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달마 대사에서 대답하셨다.

[해설] 재가자 불들도 성품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견성(見性)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성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좌불와(長坐不臥)를 몇 십년 하고 오랫동안 염불을 하고 계율을 지켜도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고 하는 수행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더라도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정진한다면 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놈이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믿어서야 됩니다. 지장보살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주는 그대로 하나이며 일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一即一切 多即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우주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色卽是空 空卽是色)”라고 말합니다. 공(空)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색(色)은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곧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찾든 아미타불을 찾든 그 실상(實相)에서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찾았도 찾든 그놈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겁니다. ‘관음’, ‘관음’을 빨리 염하면 틈이 안 생겨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만 보라고 말하였지, 애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

한 제자가 달마 스님께 “처자가 있어서 음욕을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의 성품만 보라고 말하였지, 애욕은 말하지 않았느니라”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애욕은 무시이래 익혀온 습(習)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만 보고 우주 실상을 깨치게 되면 실상에선 경계가 다 끊어지므로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기만 하면 애욕은 본래 공적한 것이라 구태여 없애려 할 것도 아니고 즐겨 빠질 것도 아니니라.”

우주의 근본 성품자리는 물질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문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뜻을 알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법신부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미타부처님’이라 부르기도 하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은 갖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은 바로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반야 실상자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일러준 것이고 본래 성품자리는 스스로 체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불성이니, 법성이니, 진공(眞空)이니 온갖 명사를 붙여놨지만 문자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 애욕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잠시 잠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내 몸의 일부만 다 키우고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 다 키우지 부모 속을 찌키게 되면 온갖 원망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보

게 되면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품만 깨닫기 위한 정진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습이 남아있더라도 불성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不垢不淨)’이란 말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 성품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다만 그 자리를 ‘청정 불성’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을 때 “일체가 마음에 달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일체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하나의 성품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근본 실상인 하나의 성품자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1338~1573년시대의 달마도(日, 林原미술관 소장)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성불의 기본

매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살면 깨침의 단계 이르러

희유하고 어려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 육도윤회의 질곡 속에서 신음하는 만 중생을 위해 바른 법의 수레인 법륜(法輪)을 굴리시으로써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셨던 것이다. 그리해 인간이 가진 모든 번뇌와 슬픔, 갈애와 분노, 아리석음과 죽을, 전쟁과 공포, 주립과 중오의 골매를 벗고 깨달음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셨다.

오늘의 주련 이야기는 금오산 향천사이다. 옛날 백제의 승려 의각 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1,035위의 불상을 배에 싣고 백제 땅에 도착했으나 이들 부처님을 모실 알맞은 집을 잡지 못해 몇 달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안에서 치는 종소리를 듣고 나타난 황금색 까마귀 1쌍에 의해 절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와 안치했던 3053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불상 가운데 1516불만이 남아 있다. 극락전 안에는 조선시대의 삼존불상이 봉안돼 있는데, 주불은 아미타여래좌상이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협시불이다.

그러나 일진왜란 당시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멸운에 의해 중건됐다. 극락전, 나한전, 천불전과 더불어 많은 요사채를 갖추고 있다. 천불전(충남문화

재자료 173)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의각이 옥돌로 조성한 높이 15cm 정도의 소불이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안치되어 있다.

극락전 앞에는 자연석을 가공해 만든 당간지주가 있고, 그 옆 나한전 앞에 9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 174)이 있다. 천불전 서쪽에 부도 2기(충남문화재자료 179)가 있는데, 의각 대사 부도 1기와, 일진 왜란 당시 승군을 조직해 금산전투에 참가했던 멸운대사의 부도 1기로, 의각 부도는 조각이 정교하며 신라나 고려 때 것과는 전혀 다른 작법을 보여준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사과조원성 삼명육통실구족: 사향(四向) 사과(四果)를 속히 잘 이루고 삼명육통(三明六通)을 모두 다 갖추었다.’

사향(四向)은 소승불교에서 수도해 깨달음을 얻어 들어가는 4가지 품계이며 수행의 가장 기초 단계인 견도향(見道向), 불교의 근본 진리를 명료하게 보는 눈을 얻는 단계인 정류향(頂流向), 육계의 모든혹을 끊는 단계인 일래향(一來向), 육계 9품의 수혹 가운데 7, 8품은 끊었지만 아직 1품이 남아 있는 단계 불환향(不還向)을 뜻한다.

사과(四果)는 소승불교의 성문들이 탐진치의 삼독을 끊고 위없는 성도에 들어가 부처가 되는 4단계 깨달음의 결과를 말한다.

삼명(三明)은 숙명통(宿命通) 천안통(天眼通) 누진통(漏盡通) 곧 과거의 업상(業相)과 인연을 알아 내 세의 상을 명확히 하며 현재의 고상(苦相)을 깨달아 번뇌를 끊어 버림을 말하고 육통은 천안통(天眼通), 천이통(天耳通), 타심통(他心通), 숙명통(宿命通), 신족통(神足通), 누진통(漏盡通)이다. 말하자면 사향 사과와 삼명육통을 다 구족하기 위해 정진하라는 경구(警句)이다.

‘밀승아불수교축 주세항위진복전: 부처님 가르침을 공손히 모두 받아 이 세상에 참된 복전을 만들어서 오래 살고자하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복전(福田)을 구하는 길이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물론 중생들이 이를 따르기란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정진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필히 부처님의 시인(施恩)을 받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부대중들이 평생 따라야 할 살임을 명심해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災運)을 막는 법
\* 집안 동도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災運) 차단법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판례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솔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집살이 現生(現世)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 뽑은 빙의(憑依)작귀신론
\* 귀장술(歸藏術) 뽑은 사후(死後)환생(轉生) 귀신(鬼魂)작해론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